

빠른 정답

[제1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②	2	④	3	①
4	②	5	④	6	②
7	④	8	③		

[제2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①	2	④	3	③
4	④	5	②	6	③
7	②	8	④	9	③

[제3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③	2	⑤	3	④
4	①	5	③	6	⑤
7	③	8	④		

정답과 해설

[1회차]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1. 정답 ②

정답

②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은 '이해'를 단순한 인식과정에서 존재론적 과정으로 상승시킨 것이지, 경험과 선입견의 활용이 곧바로 대상의 존재에 대한 이해로 이행된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해설

① 가다머에게 이해란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완전히 배제한 '객관적' 사유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입견을 바탕으로 대상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사유의 틀이 존재론적 기반이 됨으로써 이해가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관점이 드러난다.

③ 가다머에게 전통적 기틀이나 이성은 맹목적 믿음이나 전면적 불신이 아닌, 끊임없는 비판과 재해석 대상이었다. 곧 전통을 존재론적 기반으로 삼되, 그것을 의심하고 새롭게 사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④ 해석은 단순 지식 확인이 아니라 해석자와 대상, 그리고 둘을 잇는 맥락이 맞물려 새로운 의미 지평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⑤ 감지력(택트)은 해석자가 기존의 선입견을 고수하지 않고 낯선 대상을 접할 때, 그에 맞춰 직관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이다. 기존의 지식인 선입견이 발휘되지 못하는 대상은 감지력으로 반응할 수 있다.

2. 정답 ④

정답

④ 언어(㉠)는 해석학적 순환을 움직이는 '존재론적 매개'로 제시되지만, 권위(㉡)는 맹종과 배격의 이분법에 빠지지 않도록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맥락화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본문에서 가다머는 언어를 해석의 매개로 강조하며, 권위를 무작정 폐기 대상이 아니라 사려 깊게 재맥락화해야 할 무엇으로 다룬다.

오답해설

① 언어는 집적된 시각과 전체를 해석자에게 부여하며 해석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해석학적 순환을 지지한다. 시각과 전체가 해석자의 선이해적 지식을 강화하는 것이지, 해석자를 향한 질문이 사회적 조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② 권위는 맹종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해체해야 할 대상도 아니므로, 그것을 적절히 인정하고 재맥락화하려는 태도가 해석자의 이해를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를 '권위를 획득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③ 가다머에 따르면 오랜 전통이나 권위 모두 재맥락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권위(㉡)는 따로 재맥락화가 필요 없고, 언어(㉠)만 재맥락화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언어와 권위가 모두 해석의 전체가 될 수 있으나, 이들은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다.

3. 정답 ①

정답

① 해석학적 순환이란 부분과 전체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이해를 심화하는 구조이다. 상호의존적이란 표현을 살폈을 때,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이해(전체)나 전체 맥락을 필수적으로 가정해야 하며, 반대로 전체에 대한 이해는 부분으로 도모할 수 있기에, 해당 선지의 설명은 해석학적 순환과 부합한다.

오답해설

② 감지력을 통해 선입견을 비판적으로 보완·수정하는 과정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해석학적 순환의 정의를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부분과 전체가 '충돌'한다기보다 상호 의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가깝다고 하였다.

④ 부분에 대한 통찰에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옳으나,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분의 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개별적 부분 이해가 전체적 이해로 갈 수 없다는 말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을 통해 한층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4. 정답 ②

정답

② 하버마스는 해석자가 기존의 조건들에 속하기

보단 비판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다머의 선입견을 '기반'으로 삼는 태도는 하버마스에게 구조와 맥락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할 우려로 다가올 수 있다.

오답해설

① 하버마스적 관점이라면 전통에 매몰될 위험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가다머의 방식이 곧 '비판적 인식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③ 감지력 자체가 새로운 맥락을 도입하는 가능성을 담아 놓는다고 비판하기보다는, '합리적 토론과 비판'을 결여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된 입장이다. 또한 가다머의 선입견과 감지력에 대한 설명은, 기존의 맥락을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충분히 새로운 맥락을 획득할 수 있다.

④ 권위를 전면 인정하는 태도는 가다머도 지지하지 않는다. 하버마스가 비판할 수는 있으나, 이 항에서는 '가다머가 권력 구조를 지지한다'고 단정하고 있기에 본문의 내용과도 어긋난다.

⑤ 가다머가 언어의 존재론적 매개 기능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하버마스는 '언어 내부의 이념·권력 작용'을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가다머는 언어가 전통과 구조, 맥락을 내장하고 있으며 가다머의 앞선 설명에 따르면 전통, 구조, 맥락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검토와 비판적 인식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가다머가 언어가 가진 권력 구조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EBS 수능특강 141쪽 연계

작자 미상, 「토끼전」

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④: 윷글은 용왕과 토끼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토끼의 언변을 부각하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윷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는 두 명이 아니다.

②: 윷글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교차를 확인할 수 없다.

③: 윷글에서는 인물의 회상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윷글에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일관되게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6.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정답

②: 용왕은 토끼를 가르켜 '간사'하다며 토끼의 죄가 만 번 주기도 남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죄는 용왕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죄가 아닌, 거짓을 꾸며내어 자신을 속인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용왕은 '표'에 대한 토끼의 말에 의혹을 가지며 토끼의 몸에서 세 구멍을 찾으라 나졸에게 명한다. 이때, 표는 세 구멍이므로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용왕은 나졸을 시켜 토끼의 몸에서 세 구멍을 찾아내 말의 진위를 확인했음에도 토끼의 말에 대해 계속 의혹을 가지고 주저한다. 따라서 선

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용왕은 토끼의 '발림'에 속아 그를 충효가 겸전한 자라 칭하며 '귀위선생'의 충언을 무시하고 꾸짖는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용왕은 토끼의 말이 맞을 경우 토끼가 죽으면 간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음을 걱정하며 토끼를 '달래'서 간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

- ④: [C]에서 토끼는 성현의 경우를 예로 들며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경우가 특별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말이지,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A]에서 토끼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를 예로 들며, 이와 관련하여 성인과 용왕을 연결하여서 용왕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B]에서 용왕이 토끼를 간사하다며, 밀구멍이 셋이라는 토끼의 말을 의심하자, 토끼는 자신의 내력을 들어서 그 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B]에서 토끼는 자신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 동물들의 본방임을 드러내며 '표'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고, [A]에서 토끼는 자신을 믿지 않고 배를 갈랐을 경우를 가정하여 간의 위치를 물어볼 곳이 없음을 들어 용왕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경우는 적절하다.
- ⑤: [A]에서 토끼는 초월적 인물을 예로 들어서 황천길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의심을 풀어달라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C]에서 신하는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수

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

- ③: 용왕이 자신에게 표가 있다는 토끼의 말을 듣고 토끼에게 '무슨 표가 있단 말이나'며 의심하는 것은 무능력한 권력층의 면모와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토끼에게 표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에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용왕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토끼의 '배를 찢고 간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갈취하여 안위를 보전하고자 하는 권력층의 면모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토끼는 죽을 위기에 처하자 '간장이 절로 녹으며 정신이 아득'해지나 '말이나 단단히 한 번 더 하'고자 한다. 이는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백성의 면모라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용왕이 토끼의 거짓에 속아 그가 '허언'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충언을 하는 '귀위선생'을 꾸짖는 것에서 지혜로운 백성에게 속아넘어간 무능력한 권력층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토끼가 '절절이 온당한' 언사를 통해 용왕을 '폭신 삶아내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돌파하는 기지를 발휘하는 백성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2회차]
탈모

1. 답 ①

정답

① 지문에서는 탈모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대상이 모발 그 자체가 아니라 모낭임을 강조하고 있다. DHT가 모낭 기능에 영향을 주어 머리카락의 성장기가 단축되고 가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므로, '모발 자체에 영향을 준다'는 독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② 탈모가 여러 호르몬 대사·염증·면역 반응 등이 맞물린 결과임을 알고 그 과정을 이해하려는 독해 태도는 적절하다.

③ 지문에서는 TGF-β, DKK1, TNF-α 등 다양한 단백질·사이토카인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기능과 영향을 구분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다.

④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되는 호르몬(코르티솔)이 어떻게 탈모를 가속화하는지 살피는 독해 방식은 지문에서 제시한 'HPA 축 과활성'의 기전을 파악하는 데 타당하다.

⑤ 안드로겐성 탈모와 스트레스성 탈모라는 두 가지 대표 원인을 인지하고, 두 유형이 결과적으로 모낭 성장 주기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살피는 독해는 적절하다.

2. 답 ④

정답

④ "안드로겐성 탈모와 스트레스성 탈모는 모두 모낭의 성장기를 단축시킨다. 안드로겐성 탈모에서는 DHT로 인한 모낭 위축으로 성장기가 짧아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빠르게 탈락하며

스트레스성 탈모는 코르티솔 과잉,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 세포사멸 경로 활성화 등으로 모낭 성장기가 조기에 휴지기로 전환되어 텔로젠 탈락을 유발한다.

결국 둘 다 모낭의 성장기 단축이 핵심 기전이다.

오답해설

① 본문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아닌, 테스토스테론이 5α-환원효소에 의해 변환된 DHT가 모낭 퇴행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②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이 5α-환원효소 작용으로 DHT로 변환되는 것이지, DHT가 그 효소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에는 5α-환원효소 억제제 등을 사용해 DHT 생성을 줄이거나 억제한다고 했다.

⑤ 안드로겐성 탈모는 모낭 세포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DHT의 결합으로 발생하지만, 스트레스성 탈모는 염증 반응과 면역 질환으로 발생한다.

3. 답 ③

정답

③ 본문은 "염증 반응이 모낭 줄기세포의 원활한 '활성화'를 방해한다."고 했지, 줄기세포 자체가 바로 사멸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모낭의 성장 주기 전환이 빨라져 탈모가 일어나지만, '줄기세포 사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답해설

① 스트레스 자극이 지속되면 HPA 축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코르티솔 분비가 촉진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적절하다.

② 스트레스성 탈모는 코르티솔 증가로 인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다 생성 등, 안드로젠 대사와는 다른 경로에서 텔로젠 탈락을 일으킬 수 있다.

④ Bax 발현이 증가하면 세포사멸을 유도하여 정상 기능을 하던 모낭 세포 수도 감소한다.

⑤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진행되면 심리적 부담이 극심해지고, 이는 코르티솔 분비 및 Bcl-2 발현 억제 등을 가중할 수 있다.

4. 답 ④

정답

④ HPA축이 과활성화 된다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빨라진다. 이때 혈액을 더욱 공급한다면 혈압이 더욱 높아지기에 HPA의 과활성화를 완화하지 못한다.

오답해설

① A의 원인은 부신·코르티솔보다는 DHT(테스토스테론 변환) 문제다.

②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 이상이 생겨 T세포가 자극되는 경우는 원형 탈모이다. 그러나 <보기>에 서술된 B의 증상은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오히려 모낭 혈류 개선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혈류 억제는 잘못된 조치다.

⑤ 안드로겐성 탈모와 스트레스성 탈모 모두 호르몬의 대사작용을 통해 발생하기에, 환자 B만 호르몬 반응의 억제로 성장 주기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갈래복합

(가) EBS 수능특강 326쪽 연계

신지, 「영인섭이장」

(나) 윤동주, 「별뿔 떨어진 데」

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

②: (나)에서 화자는 어둠과 밝음이라는 대비되는 소재를 활용하여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자신의 내면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가)에서 색채어는 '붉은'과 '흰' 뿐이다. 이러한 색채어는 자연의 정적인 분위기를 부각하는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동일한 문장의 반복을 확인할 수 없다.

④: (나)에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호명하여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청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

③: ㉓는 화자와 달리 행복스러운 대상이며 화자의 오랜 이웃이자 벗이며 애정이 관통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화자가 길을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경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화자가 ㉔와 동일시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㉓는 시적 공간인 물가에서 나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자의 흥을 유발하므로 화자의 흥겨움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㉓는 화자가 생존하는 공간이며 어디로 갈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공간이다. 이는 화자가 방황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공간에서 화자는 방향을 모른다는 점에서 화자의 불안함과 막막함을 내포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㉓는 화자가 좇고자 하는 존재이므로 지향하는 존재이며 취향이 드러나는 존재이다. 또한

㉓는 화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공간이며 이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⑤: ㉓는 밝음의 초점과 대칭적인 위치에 있음으로써 그 속성이 부각되고, ㉔는 탄생한 자리를 지켜 자란다는 점에서 그 지속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

②: <제2수>에서 '호월은 천리로다'라는 것은 화자 자신과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괴리가 아닌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는 시구이다. 따라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제3수>에서 화자는 초장에서 굶어보니 천심 녹수, 올라다보니 만척단애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살피본 자연을 묘사하고, 종장에서 남떠러지에 꽃이 피는 것과 녹수에 백기가 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바라본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이에 종장에서 화자는 꽃이 피고 백기가 나니 흥겨워 하는 정서를 드러내어 자연을 즐기는 태도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제3수>에서 화자는 천심녹수와 만척단애를 본 후 종장에서 흥겨워하고 있으며, <제2수>에서 화자는 긴 구름 텅 빈 하늘을 보고 난 뒤 아이에게 자신은 지금 놀아야 겠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두 정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제10수>의 초장은 화자 자신의 마음과 생애에 대해 긍정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마음은 청천백일'과 '생애는 명월청풍'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⑤: <제4수>에서 '널로 좇아 늙'고자 하는 태도는 백기를 좇아 늙겠다는 태도로, 자연에 대한 긍정을 드러낸다. 한편, <제10수>의 '부귀빈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과 관계를 맺겠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두 태도가 관련을 맺는다는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8.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

④: ㉓는 나무가 행동의 방향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러한 나무는 햇

빛을 받아들여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이므로, 자립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은 자조하는 한 젊은이가 자신이라고 밝히는 표현으로, 화자는 자조함으로써 방향 중이라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자의식을 유지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은 화자가 어둠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을 드러내는 말인데, 어둠은 화자가 방향을 몰라 방황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는 화자가 줄곧 불안과 미지의 세계에 존재했음을 드러내는 말이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은 화자 자신이 부자유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인데, 화자는 이에 대해 자신과 하루살이를 비교하지만 자신과 달리 하루살이는 경쾌하고 표현한다. 따라서 화자는 부자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에서 화자는 별뿔이 떨어진 곳을 자신이 갈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별이 떨어진 곳을 자신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여기는 것인데, 화자는 행동의 방향을 몰라 방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화자의 내적 갈등의 해소를 드러낸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

- ③: (가)에서 화자는 '날갯짓 하는 새'에 주목하여 이와 특별한 관계임을 드러낸 후, 이젠 자신을 '찾을 이'가 없다는 사실과 연결하여 날갯짓 하는 새를 좇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화자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사유이지, 주어진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가)에서 화자가 '붉은 꽃'이 피고 '백구'가 나타나 흥취를 느끼는 모습은 자연을 인식하여서 이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이러한 정서는 결국 자연을 좇겠다는 화자의 의지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는 자연을 인식하여 삶의 방향성을 사유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나)에서 화자는 '하루살이'라는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이는 주목한 대상의 속성과 자신의 내면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나)에서 화자는 나무의 행동의 방향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인식하고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이 와도 '나'는 '그대로 암담'함을 인식하여 대상의 속성과 자신의 내면을 비교하여서 나무가 '행복스럽'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가)에서 화자는 자신은 '부귀빈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드러내며 자연을 지향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나)에서 화자는 어두운 '밤'이 '나의 도전의 호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삶의 방향성을 찾는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3회차]
PWM 제어

1. 답 ③

정답

③ 펄스의 반복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때 전원 소자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너무 느린 경우에는 깜빡이는 현상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하였으므로, '전압이 느리게 전환될 때 오히려 소자에 강한 열이 생긴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아날로그로 방식으로 전압을 연속적으로 낮추면 신호 손실과 열 손실, 에너지 낭비가 뒤따를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신호가 '꺼짐과 켜짐'으로만 이루어져도 충분히 빠른 반복 속도와 적절한 듀티 사이클을 통해 연속적 전압을 인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꺼짐 구간이 존재하므로 이때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 전력 소모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 ⑤ 켜짐과 꺼짐만으로도 듀티 사이클을 조절하여 다양한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 답 ⑤

정답

⑤ 낮은 주파수로 인해 깜빡임 현상이 발생한 경우 듀티 사이클을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깜빡임을 해소하기 어렵다.

오답해설

- ① 듀티 사이클이 커지면 실제 평균 전압이 높아지고 그만큼 전력 소모도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반복 주파수가 충분히 높아지면 깜빡임은 줄어들어 연속적 전압 인가와 유사해진다고 하였다.
- ③ 꺼짐 구간이 커지면 전력이 흐르는 시간이 줄어들 발생이 덜해질 수 있으므로, '열 충격이 오히려 커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주파수를 조절해 PWM 신호를 바꿀 수 있지만, 평균 전압은 주로 켜짐 구간의 비율(듀티 사이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3. 답 ④

정답

④ '펄스 주기를 짧게 하면(=반복 속도를 빠르게 하면) 평균 동력이 커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평균 출력은 주로 듀티 사이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듀티 사이클을 높이면 모터에 전달되는 평균 동력이 더 커져 회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펄스 반복 속도를 높이면 모터가 동력을 일정하게 받는 효과를 얻어 진동이나 소음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켜짐 구간을 좁히면 모터에 전달되는 동력이 줄어 회전 속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⑤ 반복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면 깜빡임이나 갑작스러운 동력 변동이 체감되어 진동과 소음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4. 답 ①

정답

① '내보내지 않음'은 '출력하거나 전달하지 않음'의 의미인데, 이를 '표현하지 않음'으로 바꾸면 맥락에서 벗어난다.

오답해설

- ② '맑은 효과'라는 말은 '유사한 효과'로 읽어도 자연스럽다.
- ③ '되풀이된다'는 맥락상 '반복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 ④ '쓰다'는 '사용한다'로 바뀌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지나치게 빠르'는 '과도하게 빠르'으로 써도 해당 맥락을 해치지 않는다.

현대시

(가) 신동집, 「목숨」

(나) EBS 수능특강 77쪽 연계
심훈, 「그날이 오면」

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

③: (가)의 '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와 '너랑 살아 보고 싶더라'는 A는 B고 싶더라의 문장 구조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가)는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가)에서는 색채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하는 시이다. 이때 (나)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가)는 살아 자와 죽은 자에게 각각 증언하라, 고발하라며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에게 각각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나)에서 화자는 그날이 왔을 때를 가정하여 사상을 전개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지만,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

⑤: [B]에서 '저편으로'는 화자와 소망이 이뤄질 때가 아직 멀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C]에서 '가슴이 미어질 듯'은 화자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고, '눈을 감겠소이다'는 화자의 소망이 이뤄지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이므로 이는 허무감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A]에서 '살은 자'는 죽은 자를 증언해야 하고, '죽은 자'는 살아 자를 고발해야 한다. 이때 죽은 자와 살아 자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기에

3행에서 목숨의 조건은 고독하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살아남은 자인 '살은 자'는 '죽은 자'가 없는 공간에서 죽은 자를 증언해야 하기에 이는 살아 자의 고독을 부각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B]에서 '바라보면 멀리도 왔다마는'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나의 뒤'는 과거를 응시하고 있는 화자의 뒤편인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뒤에서 바람이 '신명나게' 부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C]에서는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를 통해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그날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이때, '우렁찬 그 소리'를 듣는 것은 '그날'이 오는 것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C]에서 화자는 기쁨이 넘쳐서 '칼로 이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복을 만들어 '행렬'에 앞장 서겠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기쁨이라는 화자의 감정의 고조를 과장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

③: ㉔은 '그날'의 정경을 묘사한 말이며, '그날'은 화자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며 삼각산이 춤을 추는 것은 어수선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차분한과는 거리가 멀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한 개의 별빛은 억만 광년의 현암을 거쳐 화자의 목숨 안에 와닿았으므로 ㉔은 대상이 도래하기까지 걸린 고난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2연에서 화자는 무한한 삶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공'과 '숨자리'는 연결되어 백조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숨자리'에 살아서 돌아옴을 의미를 드러낸다. 이때, ㉔의 백조는 화자의 백조이므로 이러한 모습은 화자가 갈망하는 무한한 삶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㉔은 화자의 숨이 끊기기 전에만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이때, '무슨 한이 남으리까'는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화자가 죽어도 한이 남지 않음을 드러내므로 이는 소망이 이뤄질지 바라는 화자의 간절함을 부각하는 말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㉔의 '커다란 북'은 사람들의 행렬에 앞장선 화자가 치는 물건이다. 이때 사람들과 화자는 모두 그날이 오기 기뻐서 행렬을 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적 열망인 그날의 도래를 폭발시키는 도구인 커다란 북은 그날에 '여러분'이 느낄 환희를 상징한다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

④: (나)에서 화자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에서 현재는 화자가 바라는 그날과 거리가 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날과 거리가 먼 현재는 화자에게 비극적 현실이다. 하지만, (나)에서 화자가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동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가)에서 '추억 속'의 '없어진 이름들'은 맥락상 죽은 자임을 알 수 있다. 화자를 포함한 우리가 추억 속 없어진 이름들을 부르는 행위는 죽은 자와의 관계를 재인식하여 극단적 상황 속에서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가)에서 화자는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연관 지어서 살은 자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극단적 상황 속 인간의 고독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에서 그날이 도래하면 사람들이 '행렬'을 하는 모습은 민족이 그날의 도래를 열망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나)에서 화자는 그날이 오면 일어날 행렬에 우렁찬 북 소리가 울리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그날의 도래라는 민족적 열망의 완성을 소망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⑤: (가)에서 화자는 극단적 상황에 놓여있으나, 억만 광년의 현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어두움을 거쳐 별빛이 자신의 목숨에 와닿는다고 묘사하였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그날이 도래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도 그날이 도래하여서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를 소망하는 것을 통해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모습은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